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영화제목

직업병이다. 뭐든지 영화로 직결된다. 영화를 시작할 때 때론 그림이 앞서기도 하고 줄거리가 앞서기도 하고 제목이 앞서기도 한다. 이번에는 제목이다. 만일 내가 그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하다가 제목이 떠오른다. 웃지 말길 바란다. 좀 길다.

‘잃어버린 쓰레빠 한짝을 찾아서 영등포로 가자.’

내가 처음 간 구치소가 영등포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볼품없는 시를 썼다. 시인이 되려 했다. 몽글몽글 생각이 난다.

## 내가 박정희에게 감사하는 까닭



유 대 기\_ 서울대 철학과 77학번. 쌍용양회공업(주) 사원, 거름출판사 대표, 흥익미디어(주) 대표, 전인교육실천연대 대표(원)

1976년 겨울 차가운 새벽바람에 오들오들 떨면서 서울역에 내렸다. 서울대 시험 보러 가는 길. 당시 부산고에서는 선생님들이 서울대에 몇명 붙었느냐로 학교의 성적을 매기셨다. 이는 당시 명문고들의 풍속도였고, 나로서도 대학입시는 고등학교 3년의 성적표를 받는 시험이었다. 공과대학 자연계열에 입학했으나 애초에 문과 적성이던 나는 석 달을 못 채우고 휴학계를 냈다. 재수 공부 1년 후 시험을 다시 쳐서 인문대로 갔다. 철학을 전공하고 싶어 1년을 날린 셈. 철학에 뭔가 인생의 나침반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다.

학교에 들어가자 넓디넓은 캠퍼스 안 어디에서 강의가 열리는지도 몰라 우왕좌왕하면서 서서히 적응해 갔다.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들께서 간간히 하시는 말씀에다, 부산대 다니던 작은형의 발언에 영향을 받아 제법 반정부 성향이 형성된 나는 친구의 권유에 선선히 학회에 가입했다. 이렇게 몸담게 된 학회가 사회과학회. 당시 서울대에서는 큰 서클이었다. 이 학회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당시로서는 꿈에도 몰랐다.

1977년 봄, 학내 시위가 있었다. 워낙 적은 역량에 경찰의 대응력이 커서 잠시 시작하다가

사그라진 이 시위에 학회 선배가 주동자의 한 사람이었다. 이어 이어진 막걸리 자리들. 젊음의 고뇌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래도 1주일에 두세 번씩 관악으로 찾아오는 1년 연상의 이 화여대생. 지금은 나이 오십으로 흰머리 늘어가는 아내도 당시에는 아담한 체구에 긴 생머리 늘어뜨린 아리따운 여성이었다. 당시 짓눌린 관악생활에 이 여성이 청량제 구실을 해 주지 않았으면, 대학생활이 얼마나 각박했으랴.

드물게 반복되는 학내 시위에 번번이 선배들이 주동자로 구속되었다. 시위 때마다 가슴 졸여 가며 참가하고 하다가 2학기의 도서관 점거 시위로 연행되었을 때, 경찰 앞에서 나는 참능청스런 거짓말로 혼방되었다. 그러면서 마음 한 구석에는 유신정부에게 미움을 키우고, 서서히 마음 속에서 졸업을 포기해 갔다. “서울대 졸업장은 나중에 발목을 잡는 기득권이 될 수 있다, 집착하지 말라, 우리는 민중의 일원으로 이 억압체제를 타파해야 된다”고 선배들이 되풀이하여 가르쳤다. 나는 이런 지도를 도덕적 당위로 받아들였다.

교양과정 1년을 마치고 철학과로 진입했다. 부폰 꿈을 안고 간 철학과의 1학기 전공 필수 과목을 보니, 내가 원하는 내용은 아니었다. 세월이 지나서야 철학을 하려면 그런 과목이 필수 중의 필수임을 알았지만, 당시 1년이나 재수하여 철학과로 온 나의 성급함으로는 수용할 수가 없었다. 자연히 수업보다는 서클 활동에 열심이었다. 나는 학업에 성실한 대학생은 아니었다(내가 다시 철학과 간다면,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할 거다).

결국 학업에 마음을 못 붙이고 입대하고자 했다. 군대나 가자. 선배들은 군 입대를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행위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렇기도 했겠지. 날 빨리 군대로 끌고 가달라는 조기징집원을 냈다. 그런데 그 조기징집이 제대로 되지 않아 2학기에 다시 등록을 했다. 그리고는 그 학기를 못 마치고 구속되었다. 이때 영장이 제때에 나와 군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혹시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군으로 투입되는 불운을 겪지나 않았을지. 삶이란 언제나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나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받아들이는 편이다.

2학년 가을학기에는 9월부터 시위가 터졌다. 우리야 시위가 나면 행동대원들 아닌가? 열심히 뛰고 안 잡혔다는 데 안도하고 또 몸조심했다는 데 약간 죄책감도 느끼고 하면서 나는 문제 학생이 되고 있었으리라.

그 해 10월, 학회 친구인 황광우가 유인물을 뿌리자고 했다(오랫동안 노동운동계의 활동

가요 저술기였던 이 친구는 지금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장이다). 겁이 났지만 마음이 약해 거절하지 못하고 이 학회 동료가 갖고 오는 유인물들을 뿌리고 다녔다. 아마 첫 살포는 경기대학교 화장실이었을 것이다. 경기대 건물은 여러 층이어서 층마다 뿌리면서 내려왔다. 대낮에 대학 구내에 유인물을 뿌릴 줄은 경찰들도 몰랐으리라. 다음은 대성학원에 뿌렸다. 재수생들의 시위 참가를 촉구하기 위해서였다(우리가 종로학원과 대성학원에 유인물을 뿌리는 바람에 4대문 안 요지에 있던 그 학원들이 4대문 밖으로 이전했다고 들었다). 그리고는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들어가서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소리를 쳐 관심을 모으고 유인물을 확 뿌리고는 줄행랑을 쳐 버렸다. 이때 도서관을 지키던 경찰이 뼈라를 뿌리고 짹짹 도망가는 녀석들을 못잡아 곤욕을 치렀다고 들었다.

다음으로는 동대문 어딘가에서 제과점 포장지 같은 데 쓴 유인물을 받아 점퍼에 넣고는 버스를 탔다. 오늘은 거리에 유인물을 뿌리기로 한 날. 종로 길거리의 버스 정류장에 모이는 퇴근길의 시민들에게 했던 것이다. 시간에 맞춰 버스를 타야 되는데, 우리가 탈 버스가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내가 탄 버스가 종로에 왔을 때는, 이미 거리에 다른 조가 뿌린 유인물이 휘날리고 있었다. 이럴 때는 시간차를 인정하고 철수해야 되는데 나는 의무감에 그냥 감행했다. 버스의 인도 쪽 천정의 환기구를 열고는 유인물 다발을 얹어 놓고 손으로 누르고 있다가, 버스가 정해진 정류장에 서면 짹짹 버스를 내려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이미 내려 버린 버스가 정류장을 떠나면서 바람에 유인물이 휘날릴 텐데, 이빨싸, 나는 내리지도 못하고 유인물 다발을 누르고 있던 손을 떼어 유인물을 바람에 날려 버렸다. 차창밖을 보니 경찰이 버스를 따라 뛰어오고 있었다. 광화문의 신문로의 정류장에 내리니 경찰이 대학생으로 보이는 나를 붙들고 신분증을 내라고 했다. 실랑이 끝에 신촌 쪽으로 도망을 갔다. 뒤따라오던 경찰이 내 등에 대고 “개새끼!”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육교를 세 계단씩 뛰어올라 건너 경향신문 방향으로 도망가는 젊은이를 따라잡기가 힘들었던 모양이다. 이대 쪽으로 가면서 불안하여, 길 가는 어느 여대생한테 사정을 설명하면서 연인인 듯이 좀 동행하자고 부탁했다. 선선히 내 부탁을 들어 준 그 여학생이 지금도 감사하다.

그 자리에서 경찰과 실랑이하다가 점퍼와 가방을 잃어버렸다. 점퍼에 신분증이 없었으나, 가방 안에 있던 쪽지에서 공범의 이름이 나와 한 사람씩 잡히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가 자취

하던 신길동의 옥탑 방에 자정이 넘어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좁혀 오는 수사망에 위협을 느끼면서도 갈 곳이 없어 내 방에 와 있던 이흥국 선배와 박병태 선배, 그리고 나와 술을 자주 마시던 곽병찬 선배가 한꺼번에 관악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나는 이 선배가 주동자인 줄 몰랐는데 내 방에서 잡혔고, 박 선배는 다음 서울대 시위 주동 내정자인데 내 방에서 그만 잡혀 구속되는 불운을 겪었다. 곽 선배는 경찰들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내 '술친구'였는데, 그날 내 방에 왔다가 연행되어 고생 많이 하고 풀려났다.

경찰서에 가지마자 도망 못 가게 바지 허리띠를 풀고는 지하로 데려가 두들기기 시작했다. 그 몽둥이에는 어이없게도 '어머님의 사랑'이라고 적혀 있었다.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자, 이미 같은 사건에 연루된 뒤 부친의 강요로 자수한 송전대학교 1학년 학생을 데려와 대질을 시켰다. 그가 나를 보고는 이 사람이 '경상도 김(나의 가명)'이라고 불자, 나는 포기하고 시인하기 시작했다. 혐의를 부인해 온 탓에 오지게 맞았다. 야학 강사였던 그 학생은 결국 자책으로 대학을 자퇴했다고 들었다. 그도 시대의 피해자다.

좁은 창문 너머의 세상과 취조실은 정말 넘나들 수 없는 별개의 공간이었다. 자유를 구속 당해 본 자는 자유의 고마움을 안다. 감시하는 젊은 군발이가 틀어놓은 라디오가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면,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하면서 가슴을 후볐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불려가서 맞고 조서 쓰고 하다가 유치장으로 넘어갔다. 영등포구치소로 호송되던 날, 큰 안경에 수척한 모습으로 애인 얼굴이라도 보자고 와 있던 그 이대생의 모습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지금도 아내가 애인 잘 봐주겠다면서 유혹하는 조사관에게 당한 수모를 들먹이면, 참 할 말이 없다. 인간에게 가슴의 상처는 오래 남는다.

구치소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정신이 무너지면 건강도 간다. 우선 잘 먹고, 밖에서 넣어 주는 책 잘 읽고, 밝게 생활해야 된다. 스스로를 다잡자고 겨울이라도 매일 냉수 마찰을 하고, 스스로 정한 일과를 꼬박꼬박 지켰다. 어느날 야밤에 고함소리가 나 벌떡 일어나니, 선배 한 분이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말았다. 나는 갇힌 몸으로 창살을 잡고 떨었다. ‘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나도 온전한 정신으로 이곳을 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밖에서 넣어 주는 영치금을 꼬박꼬박 모았다. ‘나가면 이 돈으로 공장생활 할 방이라도 하나 마련해야지.’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방한하고 주한미군 철수 동결을 대가로

정치범들을 석방하게 되어, 1979년 여름 제헌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신병 인수자로 작은 형이 오셨다. 교도관은 서울역까지 호송왔다가 돌아갔다. 서울역 광장에서 형한테 담배를 하나 얻어 피웠다. 핑 현기증이 나면서 주저앉았다. 대우빌딩, 3년 전 까까머리 고등학생으로 새벽 기차에서 내려 올라다보면서 한 층 두 층 세다가 포기하던 그 고층 빌딩 앞에, 나는 이제 정치범 전과를 하나 단 요주의 인물이 되어 섰다. 세월은 무상했다.

부산 조방앞 시외버스터미널에 가니 형사가 나와 있었다. 고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형은 그녀를 잊으라고, 아버지의 압력이 강했다고 했다. ‘그래, 지금까지 한 고생만 해도 많다.’ 나는 다 받아들였다.

고향인 남해에서도 감시를 받고 있다가 틈나면 부산으로 올라가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었다. 투쟁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이미 감옥을 갔다온 우리들을 일반인들과는 달리 다시 군대로 끌고 가는 박정희 정권의 정치보복에 항거하는 투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에 갔더니 학회의 대선배들까지 참여한 어느 모임에서 선배들은 이미 박정희 정권이 붕괴 직전에 왔다고 진단하였다. 잘 이해가 안 되었으나 대선배들이 저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니 뭔가 근거가 있겠지.

그러던 중 정치공작으로 김영삼 씨가 민주당 총재직을 박탈당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국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부산과 마산에서 학생 시위에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계엄령이 내려졌다고 했다. 궁금해 부산으로 올라갔더니, 시청 앞에 선 탱크들에서 섬뜩한 공포가 밀려오면서 소름이 돋았다. 이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서 추수를 거두고 있는데, 누나가 멀리까지 찾아와서, “대기야, 박정희가 죽었다”, “무신 소리요?”, “아니, 라디오에서 그러던데...”, “에이, 누나는 참... .” “중앙정보부장이 총을 쏘다던데?”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어 부산으로, 서울로 올라왔다. ‘난공불락으로 보였던 절대 권력이 무너졌구나’ 우리에게 유신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우리가 학생운동을 할 때 기성세대가 우리에게 늘 하던 말, “계란으로 바위 치기야. 너희들만 다친다. 좀 더 커서 세상을 바꾸면 안 되냐?” 바위가 계란에 깨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랜 정치적 족쇄였던 긴급조치9호가 해제되고 우리는 학교로 돌아갔다. 학내의 77학번

## 이우학교에 이르기까지

친구들을 만나 보니 그 사이에 부쩍 커 있었다. 그들이 전략이니, 전술이니 온갖 어려운 용어들을 써 가면서 정국을 설명할 때는 이 친구들이 참 똑똑하다는 느낌이 안 들 수가 없었다. 학회 후배들에게 방위 갔다왔다고 하면서, 선배로서 얼굴도 내밀고 하다가 복학생 명단을 본 그들에게 감옥 갔다온 사실을 실토하기도 했다. 서서히 정치범 전과를 하나 단 복학생으로서 또 한번 1980년의 정치적 격동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가 유신체제를 어떤 내용으로 비판하였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그 유인물들 내용도 다 못 읽어 봤다. 단지 억압체제에 항거하자는 뜻에 동참한 것이다. 그 정도의 유인물 살포는 1980년대에는 훈방감이었음을 생각하면, 박정희의 유신체제는 정치적 관용을 생각할 수 없는 경직된 체제이고 그 경직성은 바로 정권이 말기에 들어섰음을 나타냈다고 본다.

대학생 시절의 옥살이가 불의의 권력에게는 어떻게든 저항해야 된다는,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는 열정을 일으키는 원초적 경험이 되어, 나는 오늘도 오십의 나이에 대한학교라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일구는지도 모른다. 나 개인의 영달을 추구했다면, 지금 어떤 모습일까? 한 50평 되는 아파트에, 대형 승용차, 명망 있는 지위 같은 것일까? 아니다. 그것들은 너무 작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희망을 품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삶의 가치지향을 심어 준 학회 선배와 동기들, 동시대를 살아온 의로운 지식인들, 그 시대의 고통을 함께 견뎌온 수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보다는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추구하는 기회를 제공한 고 박정희 씨에게 감사드린다.



정 광 필\_ 서울대 철학과 77학번.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사무총장, 이우교육공동체 공동대표, 전국대안학교협의회 총무, 이우중고등학교 교장(현)

내게도 가슴 벅찬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다. 토요일이면 봉사 서클에서 여고생들과 어울리는 재미에 빠지기도 했고, 독서토론회를 만들어 철학시를 소크라테스부터 시대 순으로 훑어보려 했으나 중세의 아퀴나스에서 막혔던 기억도 난다.

그러나 그 시절은 암울한 유신 시대였기에 세상에 대한 눈을 뜨지 않을 수 없었다. 엉뚱하게도 1973년 재야의 모든 투쟁이 숨죽여 있던 시절에 경기고등학교 1학년생인 노회찬과 함께 반정부유인물을 학내에 살포하여 당시 서울의 고등학교가 조기방학을 하게 만든 일도 있었다. 2학년 때 민청학련 때는 교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시국토론회를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평생의 지기들을 만났다. 노동운동을 함께 했었던 노회찬 의원, 이우학원의 장석 이사장, 동아일보의 김창희 부장, 울산의 최용석 변호사 등등.

대학에 입학하기 전, 난 학부에서는 인문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는 사회과학을 공부하여 세상을 이해해 보겠다는 아무진 계획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1977년 입학식도 하기 전에 몇몇 서클에 스카웃되어 학생운동을 시작했다. 결국 대학 1년을 못 채우고 11월에 제적되었고, 1978년에는 반정부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다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덕분에